

### Ⅲ. 고전산문 영역

1. 이춘풍전(작자 미상) .....	2
2. 심청가(작자 미상) .....	
3. 지하국 대적 퇴치(작자 미상) .....	
4. 김현감호(작자 미상) .....	8
5. 공방전(임춘) .....	
6. 유우춘전(유득공) .....	
7. 만복사저포기(김시습) .....	11
8. 옥루몽(남영로) .....	19
9. 숙향전(작자 미상) .....	27
10. 창선감의록(작자 미상) .....	39
11. 전우치전(작자 미상) .....	43
12. 홍보가(작자 미상) .....	
13. 성조풀이(작자 미상) .....	
14. 콩쥐팥쥐전(작자 미상) .....	53
15. 주생전(권필) .....	55
16. 최척전(작자 미상) .....	57
17. 바리데기(작자 미상) .....	
18. 임진록(작자 미상) .....	63
19. 수로 부인(작자 미상) .....	
20. 육미당기(서유영) .....	67
21. 예덕선생전(박지원) .....	71
22. 금방울전(작자 미상) .....	73
23. 할계전(이익) .....	
24. 유관악산기(체제공) .....	
25. 일야구도하기(박지원) .....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장이 처소에 돌아와서 수일 후에 사령 불러 분부하여, 춘풍을 잡아들여 형틀에 올려 매고,

“이놈, 네 들으라! 내가 이춘풍이냐?”

춘풍이 벌벌 떨며,

“과연 그러하오이다.”

“막중 호조(戶曹) 돈 수천 냥을 가지고 사오 년이 되도록 일 푼 환납 아니하니 호조 관자(關子)\* 내어 너를 잡아 죽이라 하였으니, 너는 그 돈을 다 어찌하였는고. 매우 처라.”

분부하자 사령놈 매를 들어 이십여 도를 힘껏 때리니 춘풍의 다리에 유혈이 낭자하거늘, 비장이 보고 차마 더 치진 못하고,

“춘풍아, 네 그 돈을 어디다 없었느냐? 바로 아뢰어라.”

춘풍이 대답하되,

“호조 돈을 가지고 평양 와서 일 년을 기생 추월과 놀고 나니 일 푼도 남지 않고, 달리는 한 푼도 쓴 일 없삽나이다.”

비장이 이 말 듣고 이를 갈고 사령에게 분부하여, 추월을 바빠 잡아들여 형틀에 올려 매고, 별태장(別笞杖) 골라잡고,

“일분도 사정없이 매우 처라.”

호령하여 십여 장을 중치(重治)하고,

“이년, 바빠 다짐하라. 네 죄를 모르느냐?”

추월이 정신이 아득하여 겨우 여쭙오되,

“춘풍의 돈은 소녀에게 부당하여이다.”

비장이 대노하여 분부하되,

“네 어찌 모르리오. 막중 호조 돈을 영문에서 물어 주랴, 본부에서 물어 주랴? 네 먹었는데, 무슨 잔말 아뢰느냐? 너를 쳐서 죽이리라.”

몽둥이로 때리면서,

“바빠 다짐하라.”

오십 도를 힘껏 치며 서리같이 호령하니, 추월이 기가 막히 질겁하여 죽기를 면하려고 아뢰되,

“국전(國錢)이 지중하고 관령이 지엄하니 영문 분부대로 춘풍의 돈을 다 물어 바치리이다.”

비장이 이르되,

“호조에 관자하여 너를 죽이려 하였오되, 네 죄를 뉘우치고 돈을 모두 바치겠다고 하니, 그런고로 너를 살리나니 호조 돈을 자모지례(子母之例)\*로 오천 냥을 바치라.”

하니, 추월이 여쭙오되,

“열흘 말미만 주시오면 오천 냥을 바치리다.”

다짐 써 올리니, 춘풍과 추월을 형틀에서 풀어 놓고 춘풍 더러 이르되,

“십 일 내에 오천 냥을 받아 가지고 경성으로 올라오라. 내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먼저 올라가니 내 뒤를 미처 올라와 집으로 찾아오라.”

하니, 춘풍이 황황하여 아뢰되,

“나으리 덕택으로 호조 돈을 다 거두어 받으니 은혜 백골 난망이로소이다. 경성 가서 댁에 먼저 문안하오리이다.”

하고 여쭙더라.

비장이 감사께 여쭙되,

“㉠추월에게 설욕하고 춘풍도 찾았고 호조 돈도 거두어 받으니 은혜 감축 무지하온 중, 소인 몸이 외람되이 존중한

처소에 오래 있삼기 죄송하여 떠날 줄로 아뢰나이다.”

감사 그러히 여겨 허락하니, 이튿날 감사께 하직하고 상으로 받은 돈 오만 냥을 환전(換錢) 부쳐 놓고, 떠나서 여러 날 만에 집에 와 정돈하고 환전도 찾은 후 남북을 벗어 놓고 춘풍 오기 기다리더라.

[종락 부분의 줄거리] 돈을 되찾은 춘풍은 경성으로 돌아와 마치 자신이 장사를 잘하고 온 듯 아내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는데, 이에 아내는 다시 비장의 차림으로 춘풍 앞에 나타난다.

비장 가로되,

“남산 밑 박 승지 댁에 가서 술에 대취하여 네 집에 왔더니, 시강도 하거니와 같증이나 풀게 갈분(葛粉)이나 한 그릇 하여 오너라.”

춘풍이 황공하여 밖으로 내달아서 아무리 제 계집을 찾은들 어디 간 줄 알리요. 주저주저하며 비장이 꾸짖어 가로되,

“네 계집을 어디 숨기고 나를 아니 뵈는고?”

차왈피왈(此曰彼曰)하니,

“너는 벌써 잊었느냐? 평양 일을 생각하여 보라. 네가 집에 왔다고 그리 지위가 높은 체하느냐?”

춘풍이 갈분을 가지고 부엌에 내려가 죽 쑤는 꼴은 차마 볼 수 없더라. 한참 꿈적여서 쑤어 들이거늘, 비장이 조금 먹는 체하고 춘풍을 주며,

“먹어라. 추월의 집에서 깨어진 현 사발에 누룽밥, 된장 덩이를 이지러진 숟가락도 없이 먹던 생각하고 어서 먹어라.”

춘풍이 받아먹으며 제 아내가 밖에서 다 듣는가 하여 속으로 민망히 여기더라. 비장이 가로되,

“밤이 깊었으니 네 집에서 자고 가리라.”

하고 의복 벗고 갓, 망건을 벗으니, 춘풍이 감히 가란 말을 못하고 속마음으로 해포 만에 그리던 아내 만나서 잘 잘까 하였더니, 비장이 잔다 하니 속으로 민망히 여기더라.

관망 탕건 벗어 놓고 옷을 훨훨 벗은 후 일어서니 완전한 제 계집이라. 춘풍이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천만 뜻밖에 제 아내라. 춘풍이 어이없어 목목무언 앉았으니 춘풍의 처 달려들며,

“여보소, 아직도 나를 모르시오?”

춘풍이 그제야 아주 깨닫고 깜짝 놀라며, 두 손을 마주 잡고,

“이것이 웬일인가? 평양 회계 비장이 지금 내 아내 될 줄 어이 알리. 이것이 생시인가, 꿈인가?”

하며 원앙금침에 옛정을 다시 이뤄 은근한 정이 비할 데 없더라.

- 작자 미상, 「이춘풍전(李春風傳)」-

\* 관자: 관공서에서 작성한 서류나 공증한 문서.

\* 자모지례: 1년 동안의 변리를 원금의 2할 이내로 정한 이율.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화 기법을 활용하여 당대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②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③ 서술자의 회상을 통해 외화에서 내화로 이동하고 있다.
  - ④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개입하여 주관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40.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추월'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 ② '호조 돈'은 춘풍과 추월이 호되게 매를 맞는 원인이 되고 있다.
  - ③ '감사'는 비장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다.
  - ④ '춘풍'은 평양에서 만난 비장이 아내인 것을 경성에 돌아와서 알게 되었다.
  - ⑤ '비장'은 춘풍의 행동에 노여워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은 가부장제 사회였지만 임병양란을 거치며 가장의 무능한 모습이 부각되어 그 권위가 흔들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세를 부리며 부도덕하게 사는 남성들이 존재했는데, 「이춘풍전」에는 이런 남성들에 대한 풍자가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이 소설에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난을 해결하는 존재로서의 여성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그 해결 방식이 남장을 통한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여성의 지위가 제약되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 ①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춘풍은 무능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
- ② 기생인 추월에게 호조 돈을 탕진한 춘풍은 부도덕한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
- ③ 아내가 남장을 하고 비장으로 일한 것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에 올랐음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 ④ 경성으로 돌아와서도 허세를 부리는 춘풍은 아직도 가장으로서의 권위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군.
- ⑤ 춘풍이 겪는 어려움을 아내가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아내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여성상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42. ㉠의 상황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은?
- ① 근묵자흑(近墨者黑)      ② 백척간두(百尺竿頭)
  - ③ 설상가상(雪上加霜)      ④ 순망치한(唇亡齒寒)
  - ⑤ 일거양득(一舉兩得)

**㉞** 어머니를 찾는다니, 그게 뭐니까? 사람이란 그 누구나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의 어머니를 잃어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어른이 되어서 찾은 어머니는 옛날과는 다른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는 권력일 수도 있고, 이상일 수도 있으며, 예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내가 찾은 어머니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내 꿈은 화가였습니다. 오색 물감으로 하늘의 태양과 구름, 땅의 언덕과 나무들을 아름답게 그리고 싶었지요. 그런데 중학교 땐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졸업이 아니라 수많은 졸업들을 거느리는 장군이었어요. 고등학생 시절엔 장군보다는 정치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는 행정학을 전공했었는데, 졸업할 무렵 그 모든 것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인생에는 예술가가 되려는 욕구, 군인이 되려는 욕구, 정치가가 되려는 욕구가 같이 있었습니다만..... 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다시 옷을 입으며) 어머니를 찾기는 찾아야 할 텐데..... (이정표에다가 가서 방향판을 바라본다.) 서울로 가는 길, 길에 내 운명을 맡기고 떠나보자!  
- 이강백 원작 · 김아라 연출, 「동지선달 꽃 본 듯이」 -

**㉞**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세 자식들'은 서로 간의 우애가 돈독하다.
- ② '세 자식들'은 기꺼이 어머니를 찾는 길을 나선다.
- ③ '세 자식들'은 십 년 기약을 하고 어머니를 찾아 나선다.
- ④ '세 자식들'은 세 갈래 길에서 각자가 선택한 길로 떠난다.
- ⑤ '세 자식들'은 어머니의 행방을 두고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㉞**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에서 무대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이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무대		관객석
A	B	C

A에서는 '옛날 이야기'가, B에서는 현재의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① A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의 일부가 B에서 언급되면서 두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다.
- ② 등장인물들이 '옷'을 입고 벗음은 A와 B의 상호 전환을 알리는 장치이다.
- ③ B에서 등장인물들은 C의 관객들과의 심리적 거리에 따라 말하는 위치를 바꾸고 있다.
- ④ C의 관객들은 A와 B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종합하여 극의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
- ⑤ B에서는 A에서와는 다른 역할을 하는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C의 관객들에게 직접 말하고 있다.

**㉞** ㉞, ㉞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 찾기'는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의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② '세 갈래 길'은 각 개인이 추구하는 욕망의 상이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함께 다니던 형제들의 이별은 '어린 시절의 어머니'와의 분리를 의미하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서울', '바다', '산'으로 가는 길은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떠나는 인생의 길로 해석할 수 있다.
- ⑤ '어른이 되어서 찾은 어머니'는 욕망의 무상함을 상징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춘풍의 처 하는 말이,  
"부모 조업 누만금(累萬金)을 주색(酒色)으로 다 없애고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후에 혹시 침채, 길쌈, 방직하여 돈을 모을지라도 그 무엇을 아꼈습니까?"  
춘풍이 대답하되,  
"자네 말이 내 행세를 믿지 못하니, 이후 주색잡기 삼기(手記)를 써 주세요."

지필을 내어 수기를 쓰는구나.

'모던 모월 모일 수기를 기록하여 전하노라. 이춘풍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누만금을 주색잡기로 다 써버리고, 돌이켜 뉘우치니 후회막급이라. 차일 후로 가중지사(家中之事)를 모두 김 씨에게 맡기므로, 김 씨 치산(治産) 이후로는 누만금의 재산이라도 진실로 김 씨의 재산이요, 가부(家夫) 이춘풍은 한 푼 돈 한 말 곡식도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리라. 이후에 또 다시 주색을 밝힌다면 이 수기를 들고 관아에서 판결을 받을 것이라. 증인에 가부 이춘풍이라.'

[A]

책명하여 주니, 춘풍 아내의 거동 보소.  
"수기를 들고 관아의 판결을 받겠다 하였으나, 내 어찌 가정(家長)을 걸어 송사(訟事)를 할손가."  
춘풍이 이 말 듣고 수기를 고쳐,  
'이것은 김 씨에게 올리는 수기라. 일후 만약 또 다시 잡기에 빠진다면 진실로 비부지자'라, 수기를 들고 일을 살피리라.'

하여 주니, 김 씨 받아 함롱에 넣고 이 날부터 치가(治家)를 한다.

침채 길쌈 능란하다. 오 푼 받고 새버선 짓기, 서 푼 받고 새김불 박기, 두 푼 받고 한삼 짓기, 서 푼 받고 헌옷 깎기, 네 돈 받고 장옷 짓기, 닷 돈 받고 도포하기, 옛 돈 받고 천익\* 짓기, 일곱 돈 받고 금침하기, 한 냥 받고 돌찌 누비, 두 냥 받고 바지누비, 세 냥 받고 긴옷 누비, 넉 냥 받고 관복 지며, 겨울이면 무명나이, 여름이면 삼베길쌈, 가을이면 염색하기, 이렇게 사시장철 주야로 쉴 새 없이 사오 년을 모은 돈을 장변이며 월수 놓아 수천 금을 모았으나. 의식이 넉넉하고 가세가 풍족하여 그럴 것이 바이었다. 이때에 춘풍이 아내 덕에 의복관망 꾸미고 고량진미 함포고복(含哺鼓腹)하여 술로 매일 장취하는구나. 마음이 교만하여 이전 행실 절로 난다. 명명거리고 내달아서 호조(戶曹) 돈 2천 냡을 대돈번\*으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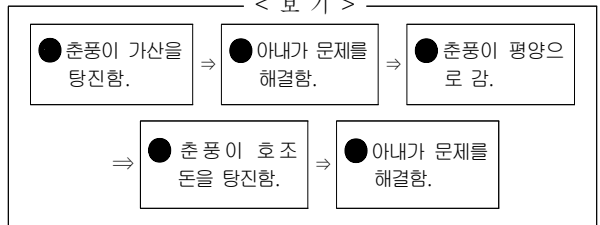
언어내어 박물군자인 채하고 평양으로 장사 가려 하니,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이 말 듣고 크게 놀라 춘풍더러 하는 말이,  
 “여보시오 서방님, 내 말 잠깐 들어 보소. 이십 전에 부모 조업 탕진하고 그 사이 오 년을 결단하고 앉았다가 물정 어두운데 평양 장사 가지 마오. 평양 물정 내 들었소. 번화 사치하고 분벽사창 청루미색\* 단순호치(丹脣皓齒)\* 반개(半開)하고 고운 노래로 교태하여 돈 많고 허랑한 자는 제 세워 두고 벗긴다는데, 평양 물정 이렇다니 부디 장사 가지 마오.”  
 지성으로 만류하니 춘풍이 하는 말이,  
 “나도 또한 사람이지, 이십 년 전에 패가(敗家)하여 원통하기 골수에 박혔으니 천금진산환부래(千金盡散還復來)\*라 하였으니 난들 항상 패가할까 속속이 다녀오세.”  
 춘풍 아내 이른 말이,  
 “연전에 한 푼 돈도 한 말 곡식도 참견 아니 할 뜻으로 수기 써서 내 함롱에 넣었거든 그 사이 잊었는가. 의식을 내게 믿고, 편안히 앉아 먹고 부디부디 가지 마소.”

**[정답 보기]** 평양에 간 춘풍은 기생 추월에게 빠져 호조 돈을 모두 잃고 추월의 집 종으로 일한다. 이 소식을 들은 춘풍의 아내는 남장(男裝)을 하고 비장(裨將)이 되어 춘풍을 찾아간다.

“막중 호조(戶曹) 돈 수천 냥을 가지고 사오 년이 되도록 일푼 상납 아니하니, 호조 관자(關子)\* 내어 너를 잡아 죽이라 하였으니, 너는 그 돈을 다 어찌하였는가. 매우 치라.”  
 분부하니, 사령 놈이 매를 들고 십여 대를 중타하니 춘풍의 다리에 유헤이 낡자하거늘 비장\*이 보고 차마 더 치진 못하고,  
 “춘풍아, 네 그 돈을 어디다 없었느냐? 바로 아뢰라.”  
 춘풍이 대답하되,  
 “호조 돈을 가지고 평양 와서 일 년을 추월과 놀고 나니 일푼도 남지 않고, 달리 한 푼 쓴 일 없삽나이다.”  
 비장이 이 말 듣고 이를 갈고 사령에게 분부하여 추월을 바빠 잡아들여 형틀에 올려 매고 별대장(別笞杖) 끌라잡고,  
 “조금도 사정없이 매우 치라.”  
 호령하여 십여 장을 중치고,  
 “이년 바빠 다짐하라. 네 죄를 모르느냐?”  
 추월이 정신이 아득하여 겨우 여쭙오되,  
 “춘풍의 돈은 소녀에게 부당하여이다.”  
 비장이 대노하여 분부하되,  
 “네 어찌 모르리요. 막중 호조 돈을 영문에서 물어 주라, 본부에서 물어주라? 네 먹었는데 무슨 잔말 아뢰느냐? 너를 쳐서 죽이리라.”  
 주장대로 지르면서,  
 “바빠 다짐하라.”  
 오십 대를 중히 치며 서리같이 호령하니, 추월이 기가 막혀 질겁하여 죽기를 면하려고 아뢰되,  
 “국전(國錢)이 지중하고 관령(官令)이 지엄하니, 영문 본부대로 춘풍의 돈을 다 물어 바치리이다.”  
 - 작자 미상, 「이춘풍전」 -

\* 비부지자: 친한 자. '비부'는 마음씨가 더럽고 못된 남자.  
 \* 천익: 무관의 공복. 철릭.  
 \* 대문면: 돈 한냥에 대해 한 달에 한 돈씩 계산하는 이자.  
 \* 분벽사창 청루미색: 아름다운 여자가 거처하는 곳. 기생집.  
 \* 단순호치: 아름다운 여자.  
 \* 천금진산환부래: 많은 돈을 쓰면 다시 돌아옴.  
 \* 관자: 관청에서 발급하는 허가서.  
 \* 비장: 감사. 또는 사신의 일을 돕던 무관.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는 모두 춘풍의 삶의 방식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 ② 춘풍의 아내는 ㉢의 과정에서 뛰어난 경제적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
- ③ 춘풍이 ㉣의 과정에서 호조 돈을 빌린 것은 ㉠로 인해 가세가 기울어 장사 밀천이 없었기 때문이다.
- ④ 춘풍의 아내가 평양 물정을 들어 ㉣를 만류한 것은 ㉡를 염려했기 때문이다.
- ⑤ 춘풍의 아내는 ㉢의 과정에서는 개인적인 능력으로, ㉣의 과정에서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보기]**를 참고할 때 [A]의 ‘수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조선은 남성 가정이 집안의 경제권을 갖는 가부장제 사회였다. 그런데 「이춘풍전」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경제 체제가 변모하면서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실패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가정이 속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집안의 경제권을 갖는 실질적인 가정이 되었다.

- ① 춘풍이 ‘수기’에서 아내의 처산을 인정하는 것은 이후 집안의 경제권이 아내에게 넘어갔음을 뜻하는 것이겠군.
- ② 집안을 일으키고자 했던 춘풍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아내에게 ‘수기’를 써 주게 된 것이로군.
- ③ ‘수기’와 관련해 아내가 춘풍과의 송사를 꺼린 것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 ④ 춘풍이 아내의 말을 듣고 ‘수기’를 고치는 모습은 가부장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군.
- ⑤ 춘풍이 조상에게 누만금을 물려받았다는 ‘수기’의 내용에서 경제 체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군.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행동과 대화를 통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 ③ 세밀한 외양 묘사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⑤ 인물의 행동들을 나열하면서 사건을 요약해 제시하고 있다.